



서양화가작가
최유희

예술인명	최유희	
소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화면을 채워 나가며, 그 속에서 소통과 공감되는 작가이고 싶다.	
개인전	2021.05	Tongue view(아트셀시 기획초대전),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2020.11	What's important?(아트셀시 기획초대전),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2019.07	Black Rain(아트셀시 기획초대전),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2017.11	A glorious day, 사이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2022.01	MY FIRST COLLECTION, 신세계 Art&Science, 대전
	2021.12	UN SUPER NATURALISM 3인전,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21.07	공공미술프로젝트 <공존>, 동작구청, 서울
	2021.06	FLOATERS (아트셀시전속작가 3인전),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2020.08	'일상으로부터'(손유화, 안소현, 최유희, 최윤정), 갤러리더플로우, 서울
소장	2019.08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2011.02	한국야쿠르트 본사, 서울
상훈	2020~2021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 선정

Tongue view : <개인전>, 2021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가볍기도 무겁기도, 부드럽기도 날카롭기도, 빠르기도 느리기도, 흥약스럽기도 아름답기도, 한 **그것** 우리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타인을 위하는 척 달콤한 사탕을 손에 쥐어주며,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것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며, 주입하며, 현혹시켰던 일들을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한다. **그것**을 만져볼 수도, 맛볼 수도,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감정의 높낮이를 한 순간 끝과 끝으로 배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누군가가 쉽게 내뱉은 **그것**으로부터 버티다 결국 넘어진다. **그것**에 대한 혐오는 현실이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맞서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당연한 일조차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당하지만 정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버티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의 불쾌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빈정거리거나 냉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드러낼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무력하게 하며,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행위를 평가절하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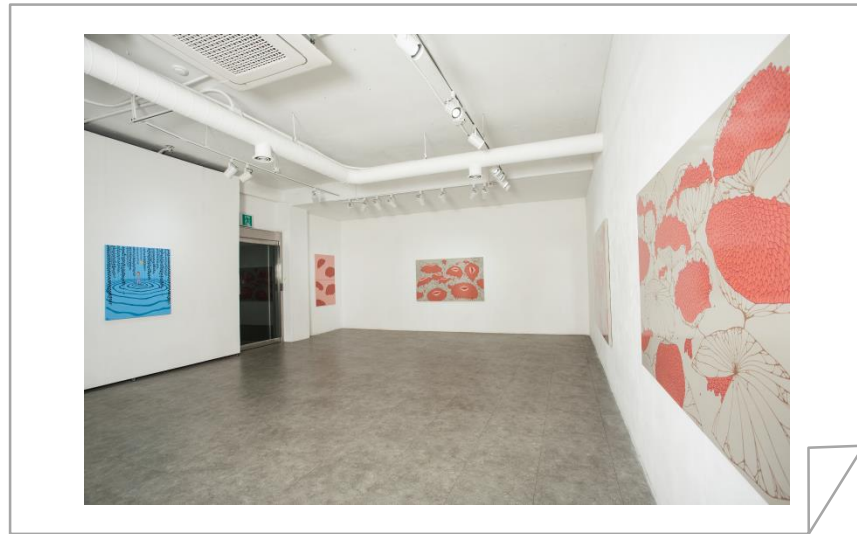
작가는 **그것**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화면 속에서 허의 이미지로 배치하여, 변이와 증식으로 생성된 기생식물처럼 접촉과 장악으로 우발적 마주침을 보여준다. 화면 속 뒤엉켜 있는 상황들 퍼져 나가는 형태들은 근원적 동일성이 아닌 이미지 자체만의 개별성을 추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고 파고드는 **그것**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생성 되어 피어나고 흩어지고 흘러내리고 시들어버리고 썩고 변화와 생성으로 윤회한다. 그리는 행위는 긍정적 방법으로 오늘과 다른 나, 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갈구하는 인간의 단면을 나타낸다.



<Sneer>, acrylic on canvas, 130.3x193.9x3cm(세로x가로x깊이), 2021

주요전시 : <Tongue view>



전시일정	2021. 05.13 ~ 2021. 05. 19
전시장소	갤러리아트셀시(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8길 27 b)
전시소개	혀의 풍경입니다. 혀(말)은 부드럽고 날카롭기도 합니다. 혀(말)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혀(말)은 살게 할 수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말)는 아름답기도 흉악하기도 합니다. 혀(말)는 작기도 거대하기도 합니다.
영상링크	https://youtu.be/9dqDQTE39mo

주요전시 : <What's important?> 2020_아트셀시 전속작가 기획초대 개인전



주요전시 : <Black rain> _갤러리아트셀시 선정작가 기획 개인전

전시 서문

다채로움 속에 갇혀 있는 현대인들 _최유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들어서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디서나 발견 할 수 있다.

'과함은 부족한 만 못하다' 고 했듯이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과 SNS 중독을 비롯하여 보여지기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 또한 SNS 속의 타인의 모습들을 보며 희비를 가지고 나의 본연의 삶을 숨긴 채 포장하며, SNS 위에 온갖 좋은 이미지들을 올리며, 포장된 나의 삶을 즐기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이런 뒤얽혀 있는 이미지들 속에서 막상 '나는 누구인가'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무궁한 발전 속에서 바쁘게 순환하고 얽혀 살아가는 '현대인' 들의 삶은 '공갈빵' 같은 것일까 싶다. 또한 솔직함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다름의 요소들의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들어내고 표현해야 할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항상 고민이다. 현대인의 이런 여러 상황, 감정의 경계를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또 생각을 진솔하게 표출하면서 화면을 이루게 된다. 결국 이런 하나 하나의 요소들이 모여 작품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작품들은 표정 없는 얼굴, 복잡한 공간, 반복과 강박이 얽혀 있는 이미지들, 현대인은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삶이 하나의 질서로 자리 잡혀 살아가며 복잡함 속에 획일화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듯 개인의 개성을 잃어가며 더 이상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컬러 풀한 색감과 화려한 패턴으로 감추고 드러내고 있다.

마치 카멜레온 같은 보호색으로 드러내고 싶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때로는 숨고 싶어하는 방식들로 현대인과 나에 대한 삶의 비판과 치유와 위로를 해주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인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현대인들이 마주한 지친 단면의 일상들 속에서 작품을 떠올리며, 궁극적으로 작품 곳곳에 숨어 나 자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관객들에게 공감될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흥미롭게 위로와 대안을 얻길 원한다.

현대인인 나의 삶에 태도의 방식을 작품에 녹이기 위해 화면을 채워 나가는 다양한 색채화 형태들의 변화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더 나은 나를 찾는 적극적인 행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화려한 이미지들은 스스로 들어내려 하나 또 동시에 숨기고 싶은 나의 어정쩡한 마음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형태들의 유사성의 다채로움의 반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찾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온전히 나를 들어내고 싶어하면서도 또 감추고도 싶어하는 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대인의 단면이다.

주요전시 : <개인전>_갤러리아트셀시 전속작가 릴레이 초대 개인전

언론보도 스크랩(2020.12.06, 금강일보)



기사 주요 내용(요약)

최유희 작가의 'what's important? 전은 화려한 색상과 함께 다채로운 문양, 파편처럼 보이는 모티브들이 그림에 채워져 있다. 작가의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여자, 엄마의 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영상 작품 목록_ 전시

순서	작품명	영상링크 / 파일명	러닝 타임	제작 연도
1	UN SUPER NATURALISM_3인전	https://youtu.be/9dqDQTE39mo	3분13초	2022
2	Tongue view_개인전	https://youtu.be/9dqDQTE39mo	2분33초	2021
3	What's important?- 개인전	https://youtu.be/aJc7bH9Plh8	9분58초	2020
4	Black rain_개인전	https://youtu.be/jfXvVzToNhM	1분51초	2019
5	The Memory Collage from Objects_2인전	https://youtu.be/Tz6qYaN4uX0	2분40초	2018